

GLOBAL TREND

세계지방자치동향

네덜란드

지방자치단체의 신개념 사회보장정책

미국

미국 주 정부 간 재정격차: 총 과세 가능 자원

일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속가능성 전환

중국

푸젠성 내 중국-인도네시아, 중국-필리핀 산업단지 조성

한국

투자심사사업 사후관리 개편방향



지방자치단체의 신개념 사회보장정책

- 네덜란드 힐버섬(Hilversum)시의 Hilversum 100

정책 도입배경

- ▶ 네덜란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보장정책과 관련하여 자치구의 실정과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보장정책을 마련하여 왔음
- ▶ 이 가운데 힐버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정책 중 Hilversum 100 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모토로 하여 지역의 자원을 차별적으로 구분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 이하 SOCO로 표기) 정책을 도입하였음
- ▶ 힐버섬시는 인구 약 92,000의 도시로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미디어 타운이자 암스테르담의 위성도시로서의 입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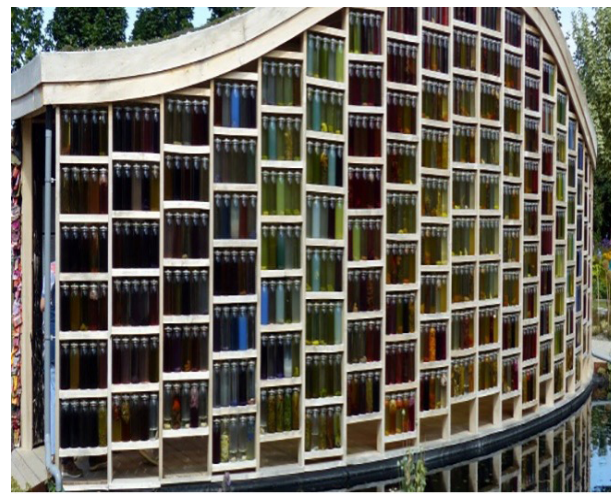
정책 개요

- ▶ SOCO는 사회정책담당 도지사(alderman)였던 아르요 클라머(Arjo Klamer)와 밥스 반 히스베르헨(Babs van Gisbergen)의 경제적·사회적 정책분석 과정을 거쳐 2017년에 지자체 정책사업으로 시행되었음
- ▶ 특히 힐버섬의 SOCO 는 재단법인이나 사회적 기업, 일반적인 사회적 협동조합과는 차별되는 형태로 지자체의 경제적·사회적 자립성 개발 및 향상에 목적을 둔 정책으로서 타 지자체들의 귀감이 되는 사례로 국립재단과 협업(LaNSCO)을 통해 실행되었음
- ▶ 지난 5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현재, 에너지, 천연자원, 미래지향적사업, 그린모빌리티, 순환경제, 지속가능한 식량 등 6개의 정책 목표를 설정함

정책 내용

- ▶ **방향성:** Hilversum 100 은 지역경제의 자생을 투명성과 지역사회의 유구한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방향성을 기반으로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구조를 기본 프레임으로 설정함
- ▶ **시스템 운영 기반 논리:** 사업운영을 위한 조직운영은 기여의사(WTC, Willing-To-Contribute)*를 반영한 시스템으로 기존의 지불의사(WTP, Willing-To-Pay)* 분석을 기반으로 해 온 사업들과 차별성을 지니고 있음
- ▶ **사업 실행 조직:** 지식기반 지역 사업 실행을 추구하며 이를 위한 사업 실행 조직을 3단계, 즉, 지역주민, 커넥터, 파트너로 구조화함
- ▶ **참여 범위:** 힐버섬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미 Hilversum 100 에는 학생부터 지역 및 외부 사업가, 외국인, 은퇴 후 인력까지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참여를 위한 기본정신은 지역사회공헌을 표방함
- ▶ **사업 분류:**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도시 및 주변의 자연환경, 미래지향적 사업, 그린 모빌리티, 순환 경제, 지속 가능한 식량확보를 위한 에코푸드 이상 총 6가지로 구성됨

*기여의사(WTC)는 지불의사(WTP)의 보완적인 개념으로서 Arjo Klamer가 제기하였으며(Klamer, 2016) 경제학에서 소비자 또는 지역 및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의 지불의사에 기반한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방법을 통해 측정되지 못하는 이해관계자들의 기여의사를 고려하여 모델링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임. 특히 기여의사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업정책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으며 기여의사와 지불의사에 대한 심층적인 비교연구 및 방법론이 이미 유럽지역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고, 관련 저서(사례연구포함)가 유럽, 호주 및 미국의 경제학자들의 공동연구로 2023년 발간될 예정임



출처: <https://hilversum100.nl>

정책의 효과

- ▶ 지난 5년간 지역사회 자생을 위해 기여의사(WTC)라는 새로운 경제적 모델을 적용한 성공적인 정책사례임
- ▶ Hilversum 100은 SOCO 의 성공 사례로서 사회적 기업 및 협동 조합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3단계의 사업 실행 조직을 갖춤. 3단계 사업 실행 조직은 자원봉사를 기반으로 운영하나, 그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함은 물론, 기본적인 보장(Remuneration policy H100), 예컨대 기본 활동비 및 보험 보장 등을 지자체에서 투명하게 명시하여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도록 제도화 함
- ▶ Hilversum 100은 기존의 시장논리에 의한 방향성 제시, 단순 보조금 지원이나 실업자 재취업 지원 등의 단편적인 사회 보장 사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구조프레임을 기반으로 한 사회 보장정책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 2050년까지 완료하는 사업들로 확장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음

시사점

- ▶ 공공 정책 마련을 위한 사회 및 경제구조 분석과 시행에 있어, 본 사업은 기존 프레임의 문제점들을 보완한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론이 아닌 실행(Practice) 중심의 지자체 정책 모델을 제시하였음
- ▶ 정책을 주도하는 이해관계자 그룹을 다양화 하면서도 제도화하였다는 데 있어 기존 사업들과 차별화 된, 정책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회자되고 있음

참고자료

- 1) Hilversum100, Annual report (2021, 2022, 2023)
- 2) Klamer, A. (2019). Economy and Culture: The Importance of Sense-Making, White, M. (Ed.). The oxford handbook of ethics and economics (First ed., Oxford handbooks online) [First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3) Won Y.S. and Klamer, A. (2020). Rethinking the value of cities (a conference paper), The City and Complexity - Life, Design and Commerce in the Built Environment, London, UK.

원윤선 통신원

won@eshcc.eur.nl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Stichting Economie en Cultuur(SEC); Project leade